



## 서른네번째 이야기

### 그분을 따라

[23-1 OBA 수료 후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1-2).”



OBA 과정은 거룩하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함부로 마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모든 자비로 저에게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을 주심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려운 상황과 불편함으로 오해하고 불신하며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조급했던 저의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를 다니며 사역도 하고 은혜를 받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패감과 상처, 또 질병을 핑계 삼아 제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봄, 암 진단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옅기의 말씀을 주셔

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닌,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다짐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상한 제 마음과 돌같이 굳어진 제 삶의 치유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시간이 아름답고 평안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은 제 의연한 모습에 오히려 감동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을 적극적인 자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늘어나는 증상 앞에 고통스럽고 두려웠습니다. 통증 앞에 원망스럽고 괴로웠습니다. 혹여나 더 나빠질까 혹시 나의 삶이 쉽게 마무리 될까 하고 두려웠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로 생활하다 직장생활을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저에게 재정에 대한 두려움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과 저를 주목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두려움은 저를 더 병들게 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노력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울함과 좌절 속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시작한 OBA 과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 사랑의 깊이에 대한 무지를 점점 깨닫게 했습니다. “승희야, 네가 아무런 대가 없이 고난 중에

나를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셨던 질문이 사실은 “승희야,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지 않아도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너를 구원해. 너는 나의 자녀야”, “승희야, 네가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그저 나의 사랑이, 나의 자비가 너에게 은혜를 허락한 것이야”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메시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외치는 기도에 늘 동문서답이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신다고 오해한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하나님의 깊이를 알지 못했던 옅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제 삶의 고질병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임을 진실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넘치는 ‘살롬’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감사와 찬양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안의 막혔던 죄가 주님의 십자가 위에 죽고, 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생각과 시간이 복음으로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나누며, 다시 하나님을 전하고 열방을 위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집중하며 고단하게 수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와 세상을 위해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가고 싶고, 나누고 싶고, 영혼의 이야기를 듣고, 응원하며 중보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발걸음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양자의 새 삶을 주신 하나님께 제 삶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글쓴이 추승희 자매]



모태신앙으로 미지근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YWAM에서 훈련을 받고 DTS 간사로 사역했다. 쉬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말씀으로 충전 할 것을 기도하다가 추천 받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3년 “나는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라인이나 아민인이나 자혜 있는 자나  
여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2. 부천BEE 12월 기도 모임과 부천 OBA수료식이 있었습니다. 5분의 귀한 수료를 축하합니다.

